

제140호(2016. 12. 30.)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1. 한·영연방 FTA 추진 현황	1
2.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	4
3.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가격 분석	16
4. 시사점	24

감 수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061-820-2263	mkjeong@krei.re.kr
내용 문의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gnos@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한·호주 FTA 이행 3년차('16년), 한·캐나다/한·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16년) 영연방 전체의 농축산물 수입은 '1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본격화되지 않음
 - '16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 대비 6.0% 증가한 27.2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72.7% 증가한 1.6억 달러
 - '16년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 대비 14.4% 감소한 9.5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25.3% 증가한 7,094만 달러
 - '16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1~'15) 대비 9.0% 감소한 8.5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2.6% 감소한 3,312만 달러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평균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8.6%(↑4.2%p)이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4.3%(△3.4%p)
 - '16년 호주산과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88.7%(↑43.9%p)와 88.5%(↑3.6%p)이며, 뉴질랜드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48.6%
 - '16년 對호주/캐나다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36.1%(↑1.2%p)와 63.6%(△1.9%p)이며, 對뉴질랜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7.7%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 축산물과 신선과일을 중심으로 수입이 평년보다 증가했고, 협정 관세율·TRQ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 변화효과는 이행 연차를 거듭할수록 확대
 - 쇠고기 수입량은 국내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평년 대비 증가했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은 관세율 인하와 TRQ 도입 등으로 증가
 - 키위는 뉴질랜드 생산량 증가, 오렌지·체리·포도는 수입금지조치 해제와 관세율 인하·철폐 등으로 수입량 증가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협정관세율과 TRQ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 변화효과는 호주산 쇠고기 5.7%, 캐나다산 돼지고기 6.7%,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치즈 각각 22.3%와 14.7%, 호주산과 캐나다산 보리 각각 14.1%와 55.5%로 추정
- 한·영연방 FTA 이행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부문 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고, 영연방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FTA 직접피해보전대책의 개선 및 보완,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新성장 동력 대책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
 - 영연방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해외 수출 네트워크 구축, 특혜관세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농축산물 수출 기반 확충 필요

'16년 한·호주 FTA는 이행 3년차, 한·캐나다/한·뉴질랜드 FTA는 이행 2년차

1. 한·영연방 FTA 추진 현황

1.1. 한·영연방 FTA 추진 개요

□ 한·호주 FTA는 협상개시('09. 5.) 이후 약 5년 만에 실질타결과 정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14년 12월 정식 발효

- 한·호주 FTA는 '0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총 7차례의 공식협상과 8차례의 비 공식회의 등을 거쳐 '13년 12월 4일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 한·호주 FTA는 호주 내 아시아 국가 간 경쟁 심화 특히, 일본·호주 EPA('15.1.15) 발효에 대응하여 '14년 12월 12일에 조기 발효됨.

□ 한·캐나다 FTA는 협상개시('05. 7.) 이후 약 9년 만에 실질타결과 정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15년 1월 1일 정식 발효

- 한·캐나다 FTA는 '05년 7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총 13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쳐 '14년 3월 11일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으로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였고,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인해 '09년 4월 ~ '11년 6월까지 협상이 잠정 중단됨.
 - 우리나라는 '11년 6월에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였으며, 비공식회의 등을 거쳐 '13년 11월에 FTA 공식협상이 재개된 후 '14년 3월에 협상이 타결됨.

□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개시('09. 6.) 이후 약 5년 만에 실질타결과 정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

- 한·뉴질랜드 FTA는 '09년 6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총 9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쳐 '14년 11월 15일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 뉴질랜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호주, 아세안 등 15개국과 총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음. 한국의 뉴질랜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됨.



1.2. 한·영연방 FTA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 시 국내 주요 민감 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등을 도입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

- 곡물의 경우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여 양허제외, TRQ, ASG를 도입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방식으로 양허함.
 - 쌀과 식용 콩의 경우 영연방 FTA에서 모두 양허가 제외되었으며, 보리·옥수수의 경우 부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거나 TRQ를 도입하여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칩용 감자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국내 감자 출하시기에 고율관세를 부과함.
- ※ 호주산 칩용 감자 계절관세율: 즉시철폐(12월~익년 4월), 15년 철폐(5~11월)

표 1. 한·영연방 FTA의 주요 곡물 양허 내용

구 분(기준관세율)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쌀	쌀 및 쌀 관련 세번 16개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겉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맥아(269%) 맥주맥(513%)	15년+ASG+TRQ	12년+TRQ(맥아)	10년간 50% 감축(맥아)/양허제외
옥수수	팝콘용(630%)	18년	10년	10년간 50% 감축
	종자용(328%)	18년	10년	10년간 50% 감축
콩	식용(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기타(487%)	10년간 50% 감축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양허제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은 10년간 50% 감축)
감자	식용(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 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칩용(304%)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TRQ	양허제외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15. 8.).

- 축산물의 경우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제외, TRQ, ASG를 도입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방식으로 양허함.
 - 쇠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15년과 10년 동안 관세율이 철폐되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도입
 - ※ 호주산 쇠고기 ASG(톤): 154,584(1년차, 40%) → 157,676(2년차, 40%) → 160,829(3년차, 40%)
 - ※ 뉴질랜드산 쇠고기 ASG(톤): 37,000(1년차, 40%) → 37,740(2년차, 40%)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유제품(분유, 치즈, 버터)에 대해 TRQ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캐나다산 유제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됨.
 - ※ 조제분유 TRQ: 499톤(호주산, '16년), 235톤(뉴질랜드산, '16년)
 - ※ 치즈 TRQ: 4,912톤(호주산, '16년), 7,210톤(뉴질랜드산, '16년)
 - ※ 버터 TRQ: 118톤(호주산, '16년), 824톤(뉴질랜드산, '16년)

표 2. 한·영연방 FTA의 주요 축산물(유제품) 양허 내용

구 분(기준관세율)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쇠고기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양허제외	15년+ASG
	식용 설육(18%)	15년	11년	15년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13년+ASG	양허제외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15년	13년+ASG	양허제외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7년/양허제외	5년/6년	18년/양허제외
닭고기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18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절단하지 않은 닭(18, 20%)	18년	10년/11년	18년/양허제외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양허제외
분유	탈진지분유·연유(176, 89%)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조제분유(36, 40%)	13/15년+TRQ	양허제외	13/15년+TRQ
	혼합분유(36%)	13/15년	양허제외	10/15년
치즈	신선·가공·기타 치즈(36%)	20년/18년+TRQ	양허제외	12년/15년+TRQ
	체다 치즈(36%)	13년+TRQ	양허제외	7년+TRQ
버터	버터(89%)	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꿀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양허제외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15. 8.).

표 3. 한·영연방 FTA의 주요 과일·채소 양허 내용

구 분(기준관세율)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감귤류·오렌지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만다린, 탄제린(144%)	계절관세	11년	양허제외
	오렌지(50%)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사과·배·포도	사과(45%)	양허제외	후지 품종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포도(45%)	계절관세	양허제외	양허제외
키위	키위(45%)	계절관세(현행/15년)	10년	6년
체리	체리(24%)	즉시철폐	10년	즉시철폐
호박	호박(27%)	15년	10년	계절관세(5년/현행)
고추	신선·냉장·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고추(27%)	양허제외	11년	양허제외
마늘	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마늘(27%)	18년	11년	18년
양파	신선·냉장·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양파(27%)	15년	11년	15년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15.8.).

- 과일·채소의 경우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거나 계절관세 적용
 - 한·호주 FTA에서는 국내 성출하기에 감귤·오렌지, 포도와 키위 등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함.
 - ※ 호주산 오렌지 계절관세율: 현행유지(10월~익년 3월), 30%로 인하 후 6년 철폐(4~9월)
 - ※ 호주산 포도 계절관세율: 현행유지(5~11월), 24%로 인하 후 4년 철폐(12월~익년 4월)
 - ※ 호주산 키위 계절관세율: 현행유지(11월~익년 4월), 15년 철폐(5~10월)
 - 한·캐나다 FTA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함.
 -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키위와 호박을 제외한 모든 신선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

한·영연방 FTA 이행초기, 수입 확대효과는 본격화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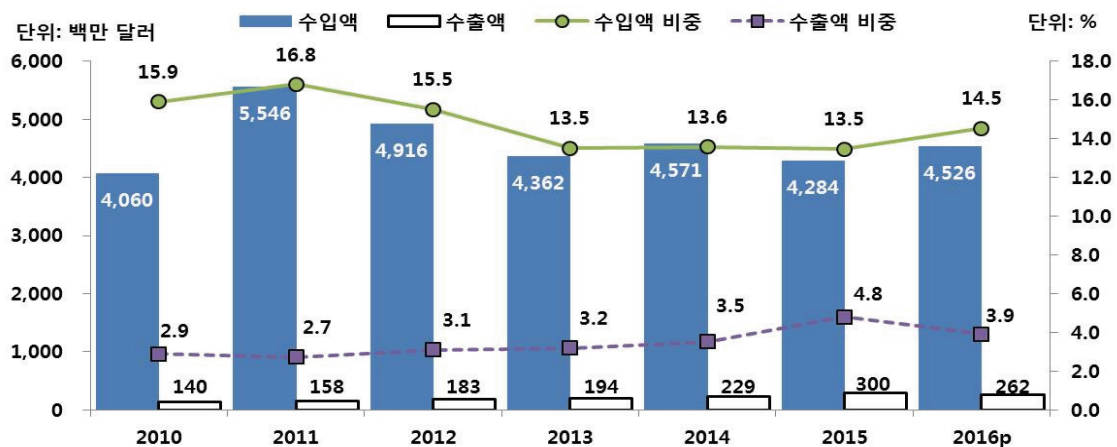
2.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2.1. 한·영연방 농축산물 교역 개황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2.0% 감소한 45.3억 달러, 對영연방 국가로의 수출액은 평년 대비 29.7% 증가한 2.6억 달러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6년 들어 회복세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추세를 보임.
 - '11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55.5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15년 42.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에는 소폭 증가함.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비중도 같은 기간 16.8%에서 13.5%로 하락한 후 '16년에 14.5%로 전년 대비 1%p 상승함.

그림 1. 한·영연방 전체 농축산물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對영연방 국가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10년 이후 연평균 16.5%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6년에는 전년보다 12.8% 감소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경향을 보임.

1) 본 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2,875개 HS코드를 대상으로 집계하였음. '16년의 경우 '16년 12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과거 3개년 12월 수출입 실적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16년 한·영연방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2.6억 달러)은 평년 대비 29.7% 증가

- '10년 1.4억 달러에 불과하던 對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15년 3.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16년에는 다시 감소함.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영연방으로의 수출액 비중도 같은 기간 2.9%에서 4.8%로 상승한 후 '16년에 3.9%로 전년 대비 소폭(0.9%p) 하락함.

□ '16년 한·영연방 농축산물 수입·수출액 가운데 호주의 비중은 각각 60.1%와 60.3%

- '16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4.6% 증가한 27.2억 달러이며, 캐나다·뉴질랜드산 수입액은 평년 대비 각각 12.7%와 9.0% 감소한 9.5억 달러와 8.5억 달러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3년 이후 연평균 4.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수입액은 '11년 이후 각각 11.2%와 4.3%의 감소 추세를 보임.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10년 52.6%에서 '16년 60.1%까지 상승했으며, 캐나다산(21.1%)과 뉴질랜드산(18.8%) 수입액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5.5%p와 2.0%p 하락
- '16년 對호주·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각각 57.7%와 4.5% 증가한 1.6억 달러와 7,094만 달러이며,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2.6% 감소한 3,312만 달러
 - 對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10년 이후 연평균 16.5%의 비교적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對캐나다·뉴질랜드 수출액은 '15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됨.
 - 對호주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은 '10년 55.1%에서 '16년 60.3%로 상승했으며, 對캐나다(27.1%)와 對뉴질랜드(12.6%) 수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2.0%p와 3.2%p 하락

표 4. 한·영연방 국가별 농축산물 교역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영연방 전체	4,060	5,546	4,916	4,362	4,571	4,284	4,526	-2.0	5.6
	호주	2,136	2,765	2,828	2,402	2,539	2,502	2,722	4.6	8.8
	캐나다	1,079	1,724	1,172	1,013	1,095	964	955	-12.7	-1.0
	뉴질랜드	845	1,056	915	947	936	818	849	-9.0	3.8
수출	영연방 전체	140	158	183	194	229	300	262	29.7	-12.8
	호주	77	82	94	98	108	152	158	57.7	4.0
	캐나다	41	49	59	62	83	110	71	4.5	-35.5
	뉴질랜드	22	26	30	35	38	39	33	-2.6	-14.1

주: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호주 FTA 이행 3년차('16) 농축산물 수입액(27.2억 달러)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6.0% 증가

2.2. 한·영연방 국가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

2.2.1. 한·호주 FTA

□ 한·호주 FTA 이행 3년차('16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증가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7.9%에서 이행 3년차 8.7%로 상승
 - 호주산 수입액(억 달러): 25.7(발효 전 평년) → 25.4('14년) → 25.0(이행 2년) → 27.2(이행 3년)
 - 호주산 수입액 비중(%): 7.9(발효 전 평년) → 7.5('14년) → 7.9(이행 2년) → 8.7(이행 3년)
- '16년 과일·채소 수입액은 체리, 오렌지, 망고와 포도 등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된 신선 과일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03.6% 증가
 - 체리(353만 달러), 오렌지(223만 달러), 망고(76만 달러), 포도(68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843.8%, 102.9%, 921.8%, 2,891.6% 증가
 - ※ 관세율 즉시철폐: 체리(24%→0), 수입금지 제외: 포도('13,12), 체리·오렌지·레몬·망고('12,1)
 - ※ 품목별 수입량: 체리(14톤→330), 오렌지(721톤→1,269), 망고(9톤→121), 포도(6톤→256)
- '16년 가공식품 수입액은 당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9.4% 증가
 - 사탕수수당(6.2억 달러), 당밀(3,270만 달러), 포도주(962만 달러), 스피루리나(157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5.0%, 159.4%, 25.3%, 1,106.2% 증가
- '16년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면양고기, 버터, 꿀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1.7% 증가
 - 쇠고기(11.2억 달러), 면양고기(5,198만 달러), 버터(766만 달러), 꿀(95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8.0%, 156.0%, 44.2%, 30.9% 증가
 - ※ 품목별 수입량: 쇠고기(16.4만 톤→20.3), 면양고기(3,676톤→9,778), 꿀(45톤→51)
- '16년 곡물 수입액은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4.4% 감소

- 밀(3.0억 달러), 보리(6,031만 달러), 옥수수(1,415만 달러), 대두(182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4.3%, 36.2%, 43.8%, 59.1% 감소

표 5. 호주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년차 (2015)	3년차 (2016)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년차 대비
전체	2,136	2,765	2,828	2,402	2,539	2,502	2,722	6.0	8.8
농산물	1,257	1,598	1,811	1,314	1,317	1,111	1,305	-7.4	17.4
- 가공식품	840	769	825	705	667	588	839	9.4	42.6
- 곡류	415	825	981	604	647	511	454	-34.4	-11.2
- 과일·채소	2	4	5	4	4	12	12.00	203.6	0.7
축산물	827	1,106	979	1,050	1,168	1,341	1,376	31.7	2.6
임산물	52	61	37	38	54	50	41	-15.3	-17.9

주 1) 한·호주 FTA는 '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14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호주 FTA 이행 3년차('16년) 對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년) 대비 72.7% 증가했으며, 과일·채소,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 수출액 모두 증가

- 對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1.5%에서 이행 3년차 2.4%로 상승
 - 對호주 수출액(억 달러): 0.9(발효 전 평년) → 1.1('14년) → 1.5(이행 2년) → 1.6(이행 3년)
 - 對호주 수출액 비중(%): 1.5(발효 전 평년) → 1.7('14년) → 2.4(이행 2년) → 2.4(이행 3년)

표 6. 對호주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년차 (2015)	3년차 (2016)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년차 대비
전체	77	82	94	98	108	152	158	72.7	4.0
농산물	70	77	86	87	100	140	147	76.3	4.9
- 가공식품	58	64	72	76	87	126	133	87.5	5.4
- 곡류	4	4	3	2	2	2	2	-40.4	-17.0
- 과일·채소	8	9	11	9	10	12	12	30.6	3.3
축산물	5	4	5	8	6	10	9	74.6	-6.6
임산물	2	2	3	3	3	2	2	-22.5	-2.4

주 1) 한·호주 FTA는 '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14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6년 가공식품 수출액은 껌, 라면, 기타 베이커리제품, 곡류 조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87.5% 증가
 - 껌(5,233만 달러), 라면(1,282만 달러), 기타 베이커리제품(810만 달러), 곡류 조제품(589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558.3%, 18.0%, 109.4%, 74.2% 증가

한·캐나다 FTA 이행 2년차('16) 농축산물 수입액(9.5억 달러)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4.4% 감소

- '16년 과일·채소 수출액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김치, 고추, 배(신선),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0.6% 증가
 - 느타리버섯(264만 달러), 팽이버섯(247만 달러), 김치(209만 달러), 고추(63만 달러), 신선 배(50만 달러), 유자(27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92.6%, 45.0%, 46.8%, 12.0%, 213.3%, 43.8% 증가
- '16년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 발효유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74.6% 증가
 - 젤라틴(420만 달러), 발효유(354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20.5%, 66.3% 증가

2.2.2. 한·캐나다 FTA

□ 한·캐나다 FTA 이행 2년차('16년)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년) 대비 14.4% 감소했으며, 곡류,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감소

-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3.4%에서 이행 3년차 3.1%로 하락
 - 캐나다산 수입액(억 달러): 11.2(발효 전 평년) → 9.6(이행 1년) → 9.5(이행 2년)
 - 캐나다산 수입액 비중(%): 3.4(발효 전 평년) → 3.0(이행 1년) → 3.1(이행 2년)

표 7. 캐나다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1년차 (2015)	2년차 (2016)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년차 대비
전체	1,079	1,724	1,172	1,013	1,095	964	955	-14.4	-1.0
농산물	305	729	337	289	358	292	338	1.4	15.6
- 가공식품	83	184	144	103	125	155	177	42.8	14.2
- 곡류	218	537	183	179	229	131	154	-26.6	17.6
- 과일·채소	4	9	10	8	5	6	7	-3.6	10.2
축산물	209	360	259	181	181	205	177	-18.0	-13.6
임산물	565	635	577	543	556	467	439	-22.4	-5.8

주: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6년 곡물 수입액은 밀, 보리, 겨자씨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6.6% 감소

- 밀(4,536만 달러), 보리(1,450만 달러), 겨자씨(152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71.2%, 30.1%, 2.5% 감소
- '16년 가공식품 수입액은 유채유, 개(고양이) 사료, 초콜릿, 커피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2.8% 증가
 - 유채유(8,421만 달러), 개(고양이) 사료(1,126만 달러), 초콜릿(460만 달러), 커피(254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44.9%, 356.3%, 154.4%, 353.7% 증가
 - ※ 개(고양이) 사료는 반려동물 증가(89만, '14~'98, '15), 커피는 수입단가 하락(13.6\$/kg→6.8)으로 수입 증가
- '16년 축산물 수입액은 돼지고기, 명크 생모피, 유장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8.0% 감소
 - 돼지고기(8,884만 달러), 명크 생모피(2,163만 달러), 유장(636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8.0%, 43.9%, 64.8% 감소

□ 한·캐나다 FTA 이행 2년차('16년) 對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년) 대비 25.3% 증가했으며, 과일·채소,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 수출액 모두 증가

- 對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0.9%에서 이행 2년차 1.1%로 상승
 - 對캐나다 수출액(만 달러): 5,662(발효 전 평년) → 11,001(이행 1년) → 7,094(이행 2년)
 - 對캐나다 수출액 비중(%): 0.9(발효 전 평년) → 1.8(이행 1년) → 1.1(이행 2년)

표 8. 對캐나다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1년차 (2015)	2년차 (2016)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년차 대비
전체	41	49	59	62	83	110	71	25.3	-35.5
농산물	38	45	55	59	80	108	68	28.3	-36.7
- 가공식품	29	35	44	46	67	95	55	31.7	-42.3
- 곡류	0	0	0	1	0	0	1	66.1	31.0
- 과일·채소	8	10	11	12	12	12	13	15.9	5.3
축산물	2	3	2	2	2	1	2	9.1	83.5
임산물	1	1	2	1	1	1	1	-52.1	-40.8

주: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6년 과일·채소 수출액은 배(신선), 감귤(신선), 포도(신선),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5.9% 증가
 - 신선 배(101만 달러), 신선 감귤(72만 달러), 신선 포도(13만 달러), 유자(60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5.7%, 19.4%, 140.9%, 34.5% 증가



한·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16) 농축산물 수입액(8.5억 달러)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9.0% 감소

- '16년 가공식품 수출액은 라면, 기타 음료, 기타 베이커리제품, 비스킷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1.7% 증가
 - 라면(681만 달러), 기타 음료(419만 달러), 기타 베이커리제품(317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1.5%, 17.5%, 105.7% 증가
 - 수출 대상국이 중국·베트남으로 전환된 핵산 등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78.2% 감소해 가공식품 전체 수출액은 1년차('15년)보다 42.3% 감소

2.2.3. 한·뉴질랜드 FTA

□ 한·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16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1~'15년) 대비 9.0% 감소했으며, 곡류, 축산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감소

-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증가했으나,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2.9%에서 이행 2년차 2.7%로 하락
 - 뉴질랜드산 수입액(억 달러): 9.3(발효 전 평년) → 8.2('15년) → 8.5(이행 2년)
 - 뉴질랜드산 수입액 비중(%): 2.9(발효 전 평년) → 2.6('15년) → 2.7(이행 2년)

표 9.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년차) 2016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1,056	915	947	936	818	849	-9.0	3.8
농산물	118	113	89	109	104	114	4.4	9.1
- 가공식품	25	26	27	32	30	34	22.5	13.1
- 곡류	1	1	1	4	3	1	-50.2	-70.0
- 과일·채소	91	86	61	73	71	79	2.2	10.3
축산물	477	401	395	369	335	349	-10.0	4.3
임산물	462	401	463	458	379	386	-12.4	2.0

주 1) 한·뉴질랜드 FTA는 '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15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6년 과일·채소 수입액은 키위, 체리, 아보카도 등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된 신선 과일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2% 증가
 - 키위(5,131만 달러), 체리(391만 달러), 아보카도(319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9.3%, 111.8%, 168.5% 증가

- ※ 키위는 수입단가 하락(2.7\$/kg→2.1), 체리는 수입금지 제외(12.1) 및 관세철폐(24%→0), 아보카도는 국내 수요 증가
- ※ 품목별 수입량: 키위(1.8만 톤→2.4), 체리(132톤→328), 아보카도(282톤→750)

- '16년 가공식품 수입액은 개(고양이) 사료, 포도주, 아이스크림, 음료베이스,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2.5% 증가
 - 개(고양이) 사료(276만 달러), 포도주(211만 달러), 아이스크림(92만 달러), 음료베이스(66만 달러), 스피루리나(62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47.6%, 29.7%, 406.2%, 148.3%, 233.9% 증가
 - ※ 개(고양이) 사료는 반려동물 증가(89만, '14→98만, '15), 아이스크림은 수입단가 상승(3.7\$/kg→4.2)
- '16년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치즈, 양장, 탈지분유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0.0% 감소
 - 쇠고기(1.1억 달러), 치즈(5,979만 달러), 양장(778만 달러), 탈지분유(222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4.9%, 30.6%, 42.9%, 25.7% 감소
 - ※ 탈지분유 수입량은 증가(802톤→1,119) 했으나, 수입단가는 46.7% 하락(3.7\$/kg→2.0)

□ 한·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16년) 對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11~'15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 감소

- 對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감소했으며,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0.6%에서 이행 2년차 0.5%로 하락
 - 對뉴질랜드 수출액(만 달러): 3,400(발효 전 평년) → 3,857('15년) → 3,312(이행 2년)
 - 對뉴질랜드 수출액 비중(%): 0.6(발효 전 평년) → 0.6('15년) → 0.5(이행 2년)

표 10. 對뉴질랜드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년차 (2016)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26	30	35	38	39	33	-2.6	-14.1
농산물	21	22	24	30	25	25	5.6	-0.0
- 가공식품	20	20	22	27	21	21	-1.1	-1.9
- 곡류	0	0	0	0	0	0	-5.7	10.1
- 과일·채소	2	2	2	3	3	4	88.7	11.1
축산물	5	8	10	8	13	8	-11.2	-42.5
임산물	0	0	0	0	0	1	158.0	50.1

주 1) 한·뉴질랜드 FTA는 '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15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6년 가공식품 수출액은 커피 조제품, 인스턴트면, 맥주, 된장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소폭(1.1%) 감소



'16년 영연방 전체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8.6%,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4.3%

- 커피 조제품(88만 달러), 인스턴트면(21만 달러), 맥주(15만 달러), 된장(9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87.1%, 49.6%, 64.2%, 29.5% 감소
- '16년 과일·채소 수출액은 배(신선), 포도(신선),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88.7% 증가
 - 신선 배(24만 달러), 신선 포도(23만 달러), 유자(3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28.2%, 88.1%, 25.8% 증가
- '16년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 연유, 꿀, 로열젤리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1.2% 감소
 - 젤라틴(703만 달러), 연유(4만 달러), 꿀(6,083 달러), 로열젤리(5,239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8.3%, 39.3%, 96.9%, 7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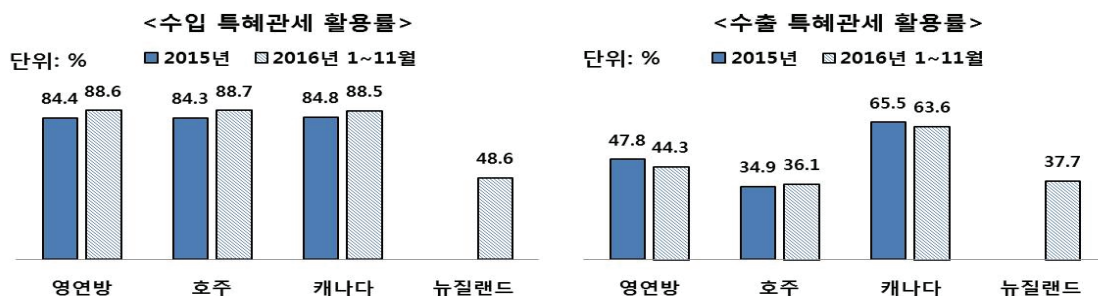
2.3.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율 활용 현황²⁾

2.3.1. 개요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³⁾은 '15년 84.4%에서 '16년 88.6%로 4.2%p 상승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0.0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26.6억 달러

그림 2. 영연방 국가별 수입 및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 '16년도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은 '16년 1~11월 수입액을 대상으로 하며, 영연방 국가 전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뉴질랜드를 제외한 호주와 캐나다의 평균값을 나타냄.
- 3) 'FTA 대상 품목'은 FTA 협상 결과 실제 관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을 의미하며, '특혜관세율 적용'은 수입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함.

'16년 한·호주 FTA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8.7%,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6.1%

-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호주산이 21.8억 달러로 가장 많고,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4.8억 달러와 3.8억 달러
- '16년 호주산,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88.7%, 88.5%와 48.6%

□ 영연방 국가로의 전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⁴⁾은 '15년 47.8%에서 '16년 44.3%로 3.4%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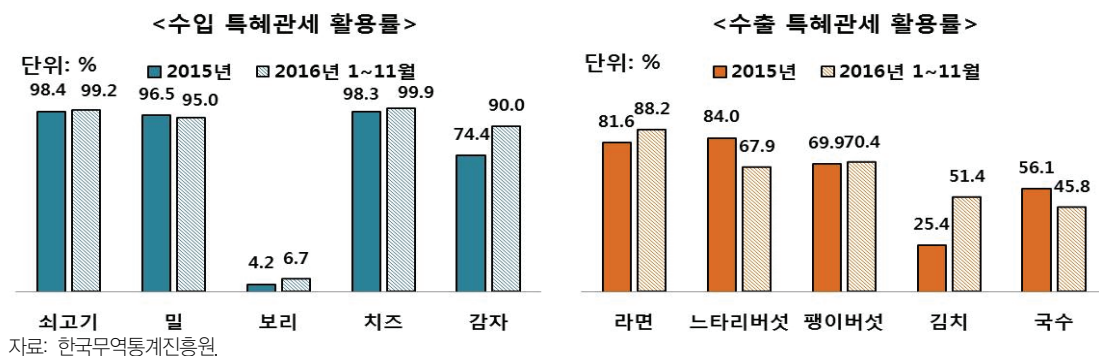
- '16년 對영연방 국가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2.1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출액은 9,293만 달러
 -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은 수출액은 對호주가 5,304만 달러로 가장 많고, 對캐나다·뉴질랜드는 각각 3,989만 달러와 1,135만 달러
 - '16년 對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36.1%, 63.6%와 37.7%

2.3.2. 한·호주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3년차('16년) 호주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4.3%p 상승한 88.7%

- 이행 3년차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24.6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21.8억 달러

그림 3. 한·호주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4)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대국의 양허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수출액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은 금액의 비중을 의미함.



'16년 한·캐나다 FTA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8.5%,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3.6%

- 호주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84.3('15년) → 88.7('16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쇠고기, 밀, 보리, 치즈와 감자 등이 있으며, 보리를 제외하고 모두 90.0% 이상의 높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 이행 3년차('16년) 對호주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6.1%로 전년 대비 1.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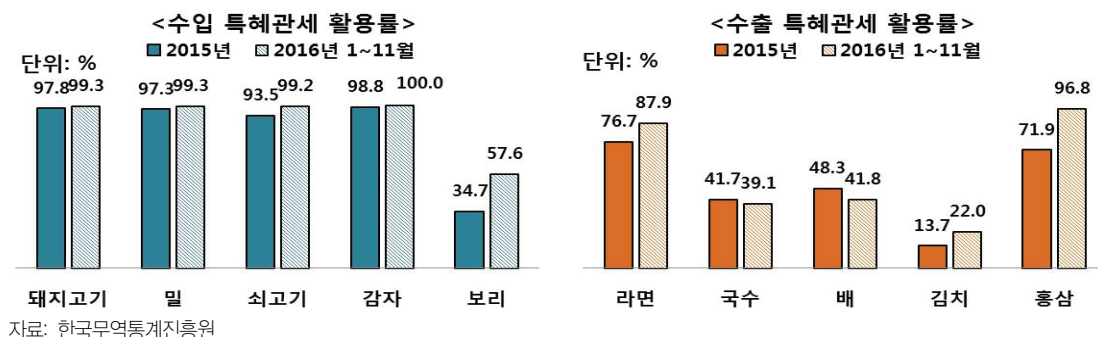
- 이행 3년차 對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1.5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5,304만 달러임.
- 對호주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34.9('15년) → 36.1('16년)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김치, 국수 등이 있으며, 김치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26.0%p 급등함.

2.3.3. 한·캐나다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2년차('16년)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3.6%p 상승한 88.5%

- 이행 2년차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5.5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4.8억 달러
- 캐나다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84.8('15년) → 88.5('16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밀, 쇠고기, 감자, 보리 등이 있으며, 보리를 제외하고 모두 100%에 가까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그림 4. 한·캐나다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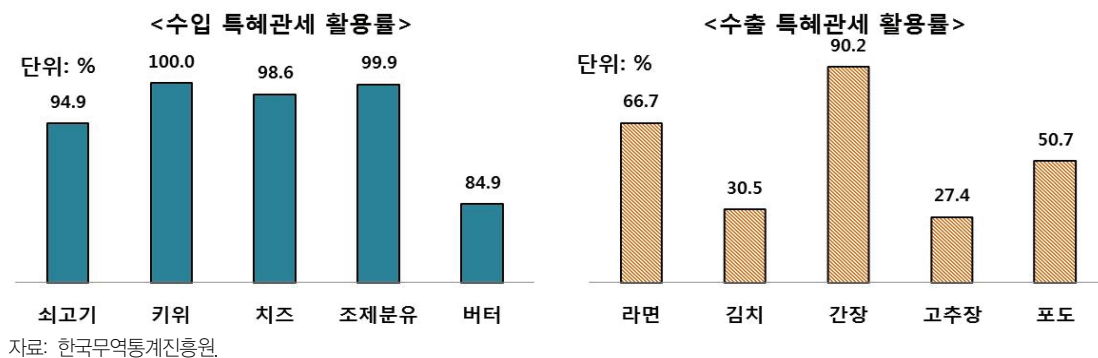
'16년 한·뉴질랜드 FTA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48.6%,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7.7%

- 이행 2년차('16년) 對캐나다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3.6%로 전년 대비 1.9%p 하락
 - 이행 2년차 對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6,275만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출액은 3,989만 달러
 - 對캐나다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65.5('15년) → 63.6('16년)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국수, 고추장, 김치, 홍삼 등이 있으며, 라면, 고추장, 홍삼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0.0%p 이상 상승함.

2.3.4. 한·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2년차('16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48.6%
 - 이행 2년차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7.7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3.8억 달러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쇠고기, 키위, 치즈, 조제분유, 버터 등이 있으며, 대부분 80.0% 이상의 높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그림 5. 한·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2년차('16년) 對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7.7%

- 이행 2년차 對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3,014만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출액은 1,135만 달러
 -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 가운데 간장(90.2%)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3.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가격 분석⁵⁾

3.1. 주요 축산물

□ 영연방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쇠고기, 면양고기, 버터, 전지분유 등의 수입량은 평년 대비 증가했으며, FTA 발효 이후에도 증가 추세 지속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주요 축산물 수입량은 협정관세율 인하와 국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
 - 호주(50.5%), 캐나다(1.2%), 뉴질랜드(6.8%)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수입량은 한우 도축두 수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15.9%와 10.2% 증가한 23만 6천 톤
 - ※ 국산 한우 도축두수(만 두): 80.9('15.1~11.) → 66.6('16.1~11.), 가격(천 원/마리): 5,783('15.1~11.) → 6,587('16.1~11.)
 - 치즈 수입량은 평년 대비 8.7%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4.7% 증가한 2만 5천 톤
 - 면양고기 수입량은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112.0%와 33.3% 증가한 1만 톤
 - 버터와 전지분유 수입량은 평년 대비 각각 34.2%와 28.5% 증가한 5,516톤과 1,979톤
-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공급 증가 등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으며, 탈지분유와 조제분유 수입량도 동일한 추세를 나타냄.
 - ※ 국내 돼지 등급판정두수(만 두): 1,405('15.1~11.) → 1,467('16.1~11.), 가격(천 원/마리): 390('15.1~11.) → 422('16.1~11.)

표 11. 영연방 국가의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단위: 톤, %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쇠고기	194,351	209,537	190,003	198,224	201,979	213,878	235,664	15.9	10.2
돼지고기	58,608	89,252	62,895	43,779	39,109	47,719	42,186	-18.0	-11.6
치즈	28,240	28,159	31,391	29,632	15,513	23,691	24,795	-8.7	4.7
면양고기	3,667	4,116	4,460	4,290	5,754	7,690	10,249	112.0	33.3
탈지분유	5,277	10,654	6,618	7,210	5,396	7,060	6,275	-9.9	-11.1
버터	5,030	6,930	5,254	3,727	2,959	3,345	5,516	34.2	64.9
전지분유	1,262	3,750	1,369	1,393	1,430	1,797	1,979	28.5	10.2
조제분유	2,354	2,047	1,740	1,624	1,419	1,790	1,507	-12.3	-15.8

주: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FTA 이행 연차가 오래될수록 주요 축산물의 협정관세율 적용 전후 가격 변동폭이 크고, 이행연차가 진행될수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16년 호주산, 캐나다산,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 보다 각각 5.7%, 3.9%, 1.9%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5) 수입가격은 $\sum(\text{코드별 수입액} \times \text{환율}) / \sum \text{코드별 수입량}$, 통관가격은 $\sum(\text{코드별 수입액} \times \text{환율} \times (1 + \text{코드별 협정관세율})) / \sum \text{코드별 수입량}$ 으로 산출하며, 가격 변화율은 기준관세율을 적용한 통관가격 대비 협정관세율 적용시의 통관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냄.

'16년 호주산·뉴질랜드산 쇠고기의 협정관세를 적용 전후 가격 변화율은 각각 5.7%와 1.9%

표 12. 영연방 국가별 주요 축산물의 통관가격 변화

단위: 원/kg,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버터	
		2015	2016.1~11	2015	2016.1~11	2015	2016.1~11	2015	2016.1~11
호주	FTA 미발효 시 가격	9,549	9,598	1,584	1,547	6,253	5,931	7,884	8,072
	FTA 이행 시 가격	9,181	9,050	1,457	1,362	5,197	4,607	7,484	7,375
	가격 변화율	-3.9	-5.7	-8.0	-12.0	-16.9	-22.3	-5.1	-8.6
캐나다	FTA 미발효 시 가격	10,856	8,003	2,802	3,142	-	-	-	-
	FTA 이행 시 가격	10,646	7,694	2,701	2,932	-	-	-	-
	가격 변화율	-1.9	-3.9	-3.6	-6.7	-	-	-	-
뉴질랜드	FTA 미발효 시 가격	7,057	7,025	-	-	6,258	5,291	7,974	8,500
	FTA 이행 시 가격	7,057	6,890	-	-	5,516	4,514	6,706	6,891
	가격 변화율	0.0	-1.9	-	-	-11.8	-14.7	-15.9	-18.9
평균 가격 변화율		-2.9	-3.8	-5.8	-9.3	-16.9	-18.5	-10.8	-22.0

주: TRQ가 포함된 치즈·버터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 '16년 호주산,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각각 12.0%, 6.7%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16년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치즈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각각 22.3%와 14.7%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16년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버터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각각 8.6%와 18.9%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13. 쇠고기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동락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단가	호주	4.54	5.49	5.34	5.36	5.74	6.03	5.81	7.7	-3.6
	캐나다	0.00	0.00	4.49	4.45	5.71	6.85	4.85	-0.7	-29.3
	뉴질랜드	3.31	4.24	3.91	4.07	4.81	4.46	4.26	4.5	-4.5
수입 가격	호주	5,255	6,084	6,020	5,869	6,045	6,821	6,856	14.6	0.5
	캐나다	0	0	5,055	4,872	6,010	7,754	5,716	4.1	-26.3
	뉴질랜드	3,827	4,702	4,408	4,451	5,066	5,041	5,018	24.9	-0.4
통관 가격	호주	7,357	8,518	8,428	8,217	8,463	9,181	9,050	8.1	-1.4
	캐나다	0	0	7,077	6,821	8,415	10,646	7,694	0.1	-27.7
	뉴질랜드	5,358	6,583	6,172	6,232	7,093	7,057	6,890	22.5	-2.4
수입 량	호주	114	129	116	132	138	154	157	25.0	2.1
	캐나다	0	0	1	2	2	1	4	119.5	307.8
	뉴질랜드	31	32	25	23	21	17	20	-26.0	13.4

주 1) 가격 분석은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를 대상으로 함.
2) 평년은 호주·캐나다는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뉴질랜드는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3)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과 '15년도에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 쇠고기의 영연방 국가별 수입단가와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상승했으나,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로 그 변화폭은 일정 부분 완화됨.

- '16년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7.7%와 4.5% 상승했으며, 통관가격은 각각 8.1%와 22.5% 상승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가격은 각각 14.6%와 24.9% 상승
 - 환율은 FTA 발효 전 평년('10~'14) 1,110원에서 '16년 1,179원으로 6.2% 상승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협정관세율은 기준관세율보다 각각 8.0%p와 2.7%p 인하

□ 호주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와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하락했고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상승했으나,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로 그 변화폭은 일정 부분 완화됨.

- '16년 호주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0.7%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17.1% 하락(수입가격은 5.8% 하락)
 -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5.7% 상승, 통관가격은 11.3% 상승(수입가격은 19.4% 상승)

표 14. 돼지고기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동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단가	호주	1,11	1,70	1,17	1,15	1,20	1,12	1,05	-10.7	-6.3
	캐나다	1,65	2,51	2,18	1,78	2,12	1,99	2,14	5.7	7.8
수입 가격	호주	1,284	1,882	1,322	1,257	1,268	1,267	1,238	-5.8	-2.3
	캐나다	1,906	2,783	2,453	1,954	2,232	2,248	2,526	19.4	12.4
통관 가격	호주	1,605	2,352	1,653	1,571	1,585	1,457	1,362	-17.1	-6.5
	캐나다	2,373	3,464	3,051	2,436	2,783	2,701	2,932	11.3	8.6
수입 량	호주	344	1,035	551	371	961	673	488	-22.3	-27.5
	캐나다	52,984	77,095	56,690	39,032	34,076	39,395	30,543	-38.4	-22.5

주 1) 가격 분석은 냉장삼겹살(0203191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동돼지고기(0203299000)를 대상으로 함.

2)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3) 호주의 경우 '14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치즈의 수입단가와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하락했고, 통관가격 하락은 FTA 발효 후 관세율 인하와 TRQ 수입량 증가에 기인함.

- '16년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8.3%와 24.2%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8.4%와 26.4% 하락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통관가격 하락은 TRQ 도입에 따른 효과에 기인하며, '16년 1~11월 치즈 전체 수입량 중 TRQ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3%와 46.5%임.

표 15. 치즈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동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호주	4.03	4.47	4.45	4.66	5.03	4.06	3.70	-18.3	-9.0
단가	뉴질랜드	4.03	4.56	4.22	4.28	4.98	4.07	3.30	-24.2	-18.9
수입	호주	4,663	4,954	5,018	5,108	5,300	4,598	4,361	-12.6	-5.1
가격	뉴질랜드	4,657	5,052	4,754	4,688	5,248	4,601	3,890	-17.8	-15.5
통관	호주	6,342	6,737	6,824	6,947	5,919	5,197	4,607	-28.4	-11.4
가격	뉴질랜드	6,333	6,870	6,465	6,375	7,137	5,516	4,514	-26.4	-18.2
수입	호주	8,636	7,446	7,483	5,749	5,374	8,047	6,045	-12.4	-24.9
량	뉴질랜드	19,306	20,583	23,908	23,883	10,139	15,643	15,500	-22.4	-0.9
TRQ	호주	-	-	-	-	3,630	4,769	4,912	-	3.0
물량	뉴질랜드	-	-	-	-	-	7,000	7,210	-	3.0

주 1) 치즈는 모차렐라·체다·크림 치즈 등 신선·가공·기타 치즈 14개 세번을 포함

2) 평년은 호주의 경우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뉴질랜드의 경우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3)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과 '15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3.2. 주요 과일

□ 주요 과일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생산량 증가와 협정관세율 인하 등으로 평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FTA 발효 이후에도 증가 추세 지속

- 뉴질랜드에서 주로 수입되는 키위와 아보카도 수입량은 현지 생산량 증가와 협정관세율 인하 등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키위 생산량(만 톤): 41('15년) → 48('16년), 협정관세율(%): 45(발효 전) → 30('16년)
 - 아보카도 협정관세율(%): 30(발효 전) → 24('16년)

표 16. 영연방 국가의 주요 신선 과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키위	22,583	25,540	20,139	12,950	15,727	17,126	24,433	38.3	42.7
오렌지	0	581	1,590	609	120	877	1,269	84.2	44.7
아보카도	53	171	233	210	432	403	750	165.7	85.9
체리	178	159	128	155	133	471	658	341.4	39.8
포도	0	0	0	0	6	545	256	11,771.6	-52.9

주: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호주에서 주로 수입되는 오렌지 수입량은 평년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포도 수입량은 평년보다는 증가했으나 국내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는 감소
- 체리는 호주산(2.3%)과 뉴질랜드산(2.3%)이 수입되고 있으며, 협정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341.4%와 39.8% 증가



'16년 뉴질랜드산 키위의 협정관세를 적용 전후 가격 변화율은 10.3%

□ 주요 과일의 협정관세를 적용 전후 통관가격 변화율은 오렌지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16년 뉴질랜드산 키위와 아보카도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각각 10.3%와 4.6%, 호주산 오렌지는 25.5%, 호주·뉴질랜드산 체리는 19.4%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뉴질랜드산 키위와 아보카도는 협정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16년 통관가격을 추정
 - 체리는 기준관세율이 즉시 철폐되었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동일한 크기로 추정
 - 오렌지는 호주산 계절관세율이 적용되는 4~9월 기준 통관가격을 추정

표 17. 영연방 국가별 주요 과일의 통관가격 변화

단위: 원/kg, %

구 분		키위		오렌지(4~9월)		체리		아보카도	
		2015	2016.1~11.	2015	2016	2015	2016.1~11.	2015	2016.1~11.
호주	FTA 미발효 시 가격	-	-	3,088	3,063	17,451	15,525	-	-
	FTA 이행 시 가격	-	-	2,420	2,283	14,073	12,520	-	-
	가격 변화율	-	-	-21.6	-25.5	-19.4	-19.4	-	-
뉴질랜드	FTA 미발효 시 가격	4,102	3,591	-	-	17,578	16,525	6,757	6,530
	FTA 이행 시 가격	4,102	3,220	-	-	17,578	13,327	6,757	6,228
	가격 변화율	0.0	-10.3	-	-	0.0	-19.4	0.0	-4.6
평균 가격 변화율		0.0	-10.3	-21.6	-25.5	-19.4	-19.4	0.0	-4.6

주: TRQ가 포함된 오렌지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20

□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단가,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모두 하락했고, 협정관세율 인하폭이 환율상승폭보다 커 그 변화폭은 확대됨.

- '16년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7.9%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4.8% 하락(수입가격은 16.1% 하락)
 - '16년 뉴질랜드산 키위의 협정관세율은 15%p 인하된 30%가 적용됨.

표 18. 뉴질랜드산 키위의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2.17	2.60	2.71	2.36	2.76	2.50	2.10	-17.9	-16.0
수입가격	2,503	2,885	3,054	2,586	2,911	2,829	2,477	-16.1	-12.5
통관가격	3,630	4,184	4,429	3,749	4,221	4,102	3,220	-24.8	-21.5
수입량	22,583	25,540	20,139	12,950	15,727	17,126	24,433	38.3	42.7

주 1)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뉴질랜드의 경우 '15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체리의 수입단가,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모두 하락했고, 기준관세율이 즉시 철폐되어 그 변화폭은 확대됨.

- '16년 호주산 체리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8.6%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69.2% 하락(수입가격은 61.8% 하락)
- '16년 뉴질랜드산 체리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7.8%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64.5% 하락(수입가격은 55.9% 하락)

표 19. 체리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단가									
호주	13.21	12.88	14.52	12.56	13.04	12.44	10.62	-18.6	-14.6
뉴질랜드	12.68	12.68	13.79	14.75	15.86	12.53	11.30	-17.8	-9.8
수입									
가격									
호주	15,279	14,274	16,359	13,752	13,732	14,073	12,520	-61.8	-11.0
뉴질랜드	14,660	14,055	15,538	16,156	16,703	14,175	13,327	-55.9	-6.0
통관									
가격									
호주	18,945	17,700	20,285	17,052	17,028	14,073	12,520	-69.2	-11.0
뉴질랜드	18,178	17,428	19,267	20,033	20,712	17,578	13,327	-64.5	-24.2
수입									
량									
호주	6	28	8	9	24	297	301	2,088.1	1.4
뉴질랜드	159	131	121	145	109	174	280	111.2	61.1

주 1) 가격 분석은 체리(0809210000), 신체리(0809210000)를 대상으로 함.

2) 평년은 호주의 경우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뉴질랜드의 경우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3)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과 '15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3.3. 주요 곡물

□ 보리와 옥수수 수입량은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으며, 감자, 대두, 아마씨는 평년과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임.

- 호주에서 주로 수입되는 보리와 옥수수 수입량은 호주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각각 EU와 미국·남미 국가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감소

※ 호주 보리 생산량(만 톤): 865('14/'15) → 859('15/'16), 호주 옥수수 생산량(만 톤): 49.5('14/'15) → 43.9('15/'16)

※ EU산 보리 수입량(만 톤): 41('15.1~11월) → 48('16.1~11월),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수입량(만 톤): 31('15.1~11월) → 156('16.1~11월)

표 20. 영연방 국가의 주요 곡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밀	1,680,811	3,309,465	2,641,639	1,180,229	1,531,780	1,276,367	1,301,162	-28.4	1.9
보리	157,377	217,361	240,941	195,274	247,809	235,883	160,342	-30.7	-32.0
옥수수	29,535	49,425	69,020	63,958	59,442	59,350	41,850	-31.3	-29.5
감자	10,746	17,844	13,297	11,760	10,116	21,466	33,877	136.9	57.8
대두	5,772	16,177	10,328	24,020	7,922	14,715	27,524	100.3	87.0
귀리	2,163	3,375	3,984	4,600	20,926	24,037	18,199	85.0	-24.3
아마씨	456	627	873	893	1,459	1,863	7,884	633.2	323.2

주: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6년 호주산·캐나다산 밀의 협정관세율 적용 전후 가격 변화율은 각각 1.8%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감자·대두·아마씨 등의 수입량은 협정관세율 인하(계절관세율 적용), TRQ 도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

※ 호주산 칩용 감자 협정관세율(%): 304(발효 전) → 0(3년차, 12월~익년 4월), 243.2(3년차, 5~11월)

※ '16년 대두 TRQ 물량: 600톤(호주산), 7,500톤(캐나다산), 캐나다산 아마씨 협정관세율(%): 3(발효 전) → 0('16년)

□ 주요 곡물의 협정관세율과 TRQ 적용 전후 통관가격 변화율은 TRQ 수입량 비중이 높은 캐나다산 보리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16년 품목별 통관가격은 호주산·캐나다산 밀은 1.8%, 호주·캐나다산 보리는 각각 14.1%와 55.5%, 호주산·캐나다산·뉴질랜드산 감자는 각각 15.0%, 15.3%, 10.2%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겉보리·쌀보리는 양허 제외된 반면, 캐나다산 보리는 15년 관세철폐와 TRQ 도입으로 통관가격 하락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감자는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율이 적용되는 5~11월 기준 통관가격을 추정하였으며, 뉴질랜드산 감자는 협정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16년 통관가격을 추정

표 21. 영연방 국가별 주요 곡물의 통관가격 변화

단위: 원/kg, %

구 분		밀		보리		감자(5~11월)	
		2015	2016.1~11.	2015	2016.1~11.	2015	2016.1~11.
호주	FTA 미발효 시 가격	335	305	2,297	2,005	2,939	2,594
	FTA 이행 시 가격	329	300	2,080	1,722	2,678	2,204
	가격 변화율	-1.8	-1.8	-9.5	-14.1	-8.9	-15.0
캐나다	FTA 미발효 시 가격	388	324	2,646	2,702	2,205	2,322
	FTA 이행 시 가격	381	318	1,720	1,202	1,868	1,968
	가격 변화율	-1.8	-1.8	-35.0	-55.5	-15.3	-15.3
뉴질랜드	FTA 미발효 시 가격	-	-	-	-	8,808	2,018
	FTA 이행 시 가격	-	-	-	-	8,808	1,813
	가격 변화율	-	-	-	-	0.0	-10.2
평균 가격 변화율		-1.8	-1.8	-22.2	-34.8	-7.6	-12.7

주: TRQ가 포함된 보리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 호주산 밀의 수입단가,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하락

- '16년 호주산 밀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8.5%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4.4% 하락(수입가격은 23.0% 하락)

- '16년 캐나다산 밀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1.2%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30.0% 하락(수입가격은 28.7% 하락)

표 22. 밀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호주	0.28	0.41	0.33	0.39	0.34	0.29	0.25	-28.5	-12.5
단가	캐나다	0.36	0.48	0.42	0.39	0.37	0.34	0.27	-31.2	-20.0
수입	호주	320	457	376	427	361	329	300	-23.0	-8.8
가격	캐나다	413	531	475	422	388	381	318	-28.7	-16.6
통관	호주	326	466	383	434	368	329	300	-24.4	-8.8
가격	캐나다	423	541	484	430	396	381	318	-30.0	-16.6
수입	호주	917	991	1,028	954	1,023	1,074	1,024	-47.6	-4.6
량	캐나다	163	201	179	170	167	202	143	-58.5	-29.0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호주의 경우 '14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 호주산 보리의 수입단가와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모두 하락했고,
캐나다산 수입단가는 상승한 반면, 통관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

- '16년 호주산 보리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3.6%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14.8% 하락(수입가격은 2.2% 하락)
 - '16년 캐나다산 보리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소폭(0.6%) 상승했으며, 통관가격은 42.0% 하락(수입가격은 1.2% 상승)
 - 캐나다산 보리의 통관가격 하락은 FTA 체결 후 도입된 TRQ 물량의 영향이 큼.
- ※ 캐나다산 보리 TRQ: 2,500톤(겉보리·쌀보리, 1~14년차 각 연도), 14,200톤(맥아, '16년)

표 23. 보리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호주	0.40	0.51	0.49	0.53	0.51	0.51	0.43	-13.6	-14.1
단가	캐나다	0.52	0.53	0.73	0.68	0.64	0.63	0.62	0.6	-1.9
수입	호주	460	563	555	576	533	571	512	-2.2	-10.4
가격	캐나다	605	592	827	744	670	715	731	1.2	2.2
통관	호주	1,831	2,329	2,413	2,423	2,233	2,080	1,722	-14.8	-17.2
가격	캐나다	2,231	2,185	3,052	2,746	2,474	1,720	1,202	-42.0	-30.1
수입	호주	137	187	204	167	205	206	125	-44.0	-39.3
량	캐나다	21	30	37	28	43	30	20	-37.7	-33.4
TRQ	호주	-	-	-	-	-	10	10	-	2.0
물량	캐나다	-	-	-	-	-	13	14	-	9.2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2) 호주의 경우 '14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별 협정문.



4. 시사점

- 한·영연방 FTA는 '14년 12월 호주를 시작으로 '15년 1월 캐나다, 같은 해 12월 뉴질랜드 순으로 발효되어 각각 발효 3년차(호주), 2년차(캐나다, 뉴질랜드)를 맞고 있음.
 - 곡물과 축산물은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제외, TRQ, ASG를 도입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철폐 방식으로 양허하였음.
 - 과일·채소는 신선 농산물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국산 농산물 성출하기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 '16년 영연방에서 수입된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평년 대비 2.0% 감소한 45.3억 달러, 영연방으로 수출한 농축산물 전체 수출액은 29.7% 증가한 2.6억 달러
 - 영연방 국가와의 교역 중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호주로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의 60.1%, 수출액의 60.3%를 차지함. 또한 호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16년 영연방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특혜관세율을 활용한 비율은 44.3%로 전년의 47.8%에 비해 하락했으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8.6%로 4.2%p 상승
 - 국가별로 호주 대상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승한 반면, 캐나다 대상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감소함.
- 한·영연방 FTA의 이행 연차가 누적될수록 관세 인하폭이 커지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피해 지원과 구조조정 대책을 통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내실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영연방 국가에 수출하는 농축산물 전체 수출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영연방 국가에 FTA 관세인하 효과를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영연방 국가의 시장 정보 강화, 농축산물 수출품목의 발굴 및 경쟁력 강화, 특혜관세 활용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함.



2016년

-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운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정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KREI 농정포커스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12. 30.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44-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